



3루타 안치홍 “그래 바로 이맛이야”

6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KIA 안치홍이 0-1로 뒤지던 8회말 1사 2루에서 동점 3루타를 때린 뒤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운명의 8회 ... 투·타 막내가 해냈다



심동섭, 무사만루 위기 무실점 방어
 안치홍, 통쾌한 3루타로 역전 발판
 KIA, 넥센에 2-1 짜릿한 역전승

투·타의 막내가 호랑이 군단의 3연승을 합작했다.
 KIA 타이거즈가 6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김성현의 결승타로 2-1 역전극을 연출했다.
 0-1로 뒤지던 8회가 승부처가 됐다. 투수 조 막내 심동섭이 8회초 무사만루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고, 야수조 막내 안치홍은 8회말 동점타를 때리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6회까지 KIA 선발 트레비스와 넥센 선발 김성현의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됐다.
 트레비스가 6개의 탈삼진을 뽑으며 넥센 타선을 봉쇄하는 동안 김성현은 3개의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KIA의 발목을 잡았다.
 7회 트레비스가 실점을 기록하면서 0의

균형이 깨졌다.
 1사에서 김정호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트레비스가 허도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허용했다. 7회말 KIA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1사에서 나지완과 차일목이 연속볼넷으로 걸어났다. 폭투로 1사 2·3루가 됐지만 김주형이 삼진으로 물러났다. 2사 2·3루에서 이번에는 신종길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만루를 채웠다.
 피로누적으로 선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이범호가 대타로 나섰지만 풀카운트 승부 끝에 3루수 플라이가 나오면서 절호의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패색이 짙어가던 8회 무사 만루의 위기에서 2년차 좌완 심동섭이 구세주가 됐다.

8회초 트레비스가 첫타자 장기영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손영민에게 마운드를 넘겨줬지만 유한준의 중전안타와 알드리지의 볼넷이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조범현 감독이 심동섭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대타 조종근이 때린 공이 그대로 2루수 안치홍의 글러브로 빨려들어갔고, 홈으로 뛰어 들던 3루수 장기영이 귀루를 하지 못하면서 투야웃이 됐다. 심동섭은 김정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의 8회를 실점없이 깔끔하게 막아냈다.
 대타 카드로 성공했다. 8회말 1사에서 이현곤 대신 좌타자 최훈락이 타석에 투입됐다. 최훈락이 바뀐 투수 마정길을 상대로 2루타를 때려냈다. 3번 임무를 맡은 안치홍은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로 최훈락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1-1을 만들었다.
 끝이 김성현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9회 무사 1루에 마무리로 나선 유동훈은 실점 없이 뒷문을 지키면서 5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심동섭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포의 야구장’

군산월명구장이 ‘공포의 야구장’으로 악명이 높다.
 5일 경기도중 타구에 맞아 코뼈와 상악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KIA 내야수 김선빈이 6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올 시즌 군산에서의 4번째 엔트리 탈소다.
 군산 출신의 김성현이 가장 먼저 고향에서 쓰러졌다. 허리가 좋지 않던 김성현은 5월20일 시즌 첫 군산경기에서 허리통증이 악화돼 다음날 바로 짐을 싣다.
 두 번째 군산시리즈가 열린 6월에는 안치홍이 희생양이 됐다. 안치홍은 10일 경기가 끝난 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

다.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느라 허리 부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시즌 세 번째 군산시리즈가 진행된 지난 5일에는 피까지 보고 말았다.
 넥센의 공격이 진행되던 2회초 KIA 유격수 김선빈이 알드리지의 타구에 얼굴을 맞으면서 쓰러졌다. 많은 피를 흘린 김선빈은 앰بول스에 실려 급히 호송됐고 코뼈와 상악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광주로 옮겨진 김선빈은 6일 전남대병원에서 코뼈 및 상악골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았다. 2시간 20여분간 진행된 수술에

군산월명구장, 딱딱한 그라운드·안전장치 없는 펜스
 김성현·안치홍·김선빈·신경현·정의윤 줄줄이 부상

서 김선빈은 골절된 코뼈를 지지대로 세웠고 상악골 고절 부위를 쇠파스로 고정했다.
 2주 가량 입원 치료를 한 뒤 4주 후 훈련을 재개할 전망이지만 공·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본인은 물론 코칭스태프와 팬들의 아쉬움이 컸다.
 KIA만 부상에 운 것은 아니다. 험난한 군산 원정길에 나선 한화와 LG도 부상 때문에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다.
 5월20일 한화 안방마님 신경현은 류현진의 원바운드 공에 오른쪽 무릎을 맞고 쓰러졌다. 고향 방문길에 올랐던 신경현은 부

상을 안고 재할군 신세가 됐다.
 LG 정의윤도 재할군 명단에 오를 뻔했다. 6월10일 경기에서 최희섭의 홈런타구를 처리하던 외야수 정의윤은 안전장치 없는 펜스에 부딪히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정의윤은 LG 속소가 마련된 전주까지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엔트리 탈소는 면했다.
 열악한 경기장에서 힘들게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팬들이나 조마조마한 군산시리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대 서운섭·광주여대 김소연 대학양궁 금메달

제14회 한국대학양궁 오픈 선수권대회 첫날 경기에서 호남대 서운섭과 광주여대 김소연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일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대부 컴파운드 90m에서 호남대 서운섭이 335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명중시켰다.
 여대부 리커브 70m에서는 광주여대가 집안싸움을 벌이며 금·은을 가져갔다.
 김소연은 341점을 기록하면서 337점의 안세진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순천대 이유미는 336점으로 3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동현 1위 ... 한국 남자 전원 32강 직행

양궁 세계선수권대회

임동현(청주시청)이 2011 국제양궁연맹(FIT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예선 1위에 오르는 등 한국 남자 양궁 선수 전원이 본선 32강에 직행했다.
 임동현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 리커브 개인전 예선라운드에서 1366점을 쏘아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라운드는 90m와 70m, 50m, 30m에서 각각 36발씩 총 144발을 쏘 순위를 정한다.
 임동현은 예선 2위인 브래디 앨리스와 동

점을 쏘으나 10점이 85개로 81개를 쏘 앨리스에 앞서 1위가 됐다. 김우진(청주시청)이 1358점으로 3위를 차지했고, 같은 점수를 쌓은 대표팀 마형 오진혁(농수산소속)은 10점 개수에서 밀려 4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의 개인전 예선에서 출전 선수들이 모두 상위 8명 안에 들어 본선 32강으로 곧바로 올라갔다. 한국은 개인점수를 합쳐 본선 진출 16팀을 선발하는 단체전에 서도 4082점을 기록, 이탈리아(4012점)를 밀착이 따돌리고 1위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 8위까지 주어지는 최대 3장의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한 발짝 다가섰다.
 /연합뉴스

여자 축구 대표팀 올림픽 대비 소집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올 9월 예정된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대비해 8일 오후 2시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소집훈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A대표팀에 발탁된 골키퍼 이효주(울산과학대) 외에 정예 멤버 위주로 24명이 소집됐다. 전가을(현대제철), 이장미·차연희·박희영(이상 고양대교), 김나래(수원시설관리공단) 등 선수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평가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지소연도 같은 팀 소속인 권은솜과 함께 7일 오후 귀국해 합류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Goph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리즈골프(Liz Golf) 프라이م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 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회원자격	골프서비스	숙박서비스	모집인원
프라이م 호남VIP	15,2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무기명-3인	주중8회, 주말4회/월 (월12회 / 년108회)	27평형대 년 60박	9명
플래티늄	6,40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주중3회, 주말1회/월 (월4회 / 년39회)	27평형대 년 15박	32명
프라이م	3,800만원			기 명-1인	주중2회, 주말1회/월 (월3회 / 년27회)	25평형대 년 15박	

프라이م 호남 VIP란?

- ▶ 광주/전남 법인회원을 위해 리즈골프 호남지사만의 단독상품으로 법인 Business용 Golf Membership 회원권입니다.

기타 회원혜택

-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 골프투어시 제주 골프월 연 15박 회원대우)
- ▶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자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 ▶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代)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